

디지털홈 컨버전스 시대를 연다

주목할 만한 성장세를 기록하며 셋톱박스 업계의 강자로 떠오른 홈캐스트, 디지털 멀티미디어 전문기업으로의 변신을 꾀하며 탄탄한 성공스토리를 써내려가고 있는 홈캐스트의 신욱순 대표를 만났다.

홈 캐 스투 신 욱 순 대 표



디

지털 셋톱박스 전문업체 홈캐스트의 신옥순 대표는 일명 '셋톱박스 파이어니어'로 불린다. 삼성물산이 국내 최초로 이날로그형태의 셋톱박스를 제작해 해외시장 개척에 나섰다던 1989년, 그는 독일주재원으로 근무하면서 국산 셋톱박스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리고 16년 전 맺은 셋톱박스와의 인연 덕에 지난 2003년부터는 홈캐스트의 선봉에 서게 된 것이다. 상대 출신인 신대표가 IT기업의 CEO로 당당히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데에는 다년간에 걸친 현장 경험이 밑거름으로 작용했다.

고부가제품으로 시장 선점, 성장 가속화

신대표가 취임한 후 회사는 여러 면에서 쇄신을 거듭하고 있다. 이엔테크닉스였던 사명을 홈캐스트로 바꾸고 본격적인 유럽시장 공략에 나선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자가브랜드를 통해 유통망을 확보해야 한다고 판단한 그는 과감히 CI까지 교체하고 홈서버(Home)와 지상파(Broadcast)를 선도하는 기업으로의 도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 결과 주로 OEM(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존하던 영업방식의 자가 브랜드 비율이 30%대로 개선됐고, 브랜드 인지도 또한 월등히 상승했다. 이는 세계시장 진출에 있어서 효과적인 전략으로 작용해 해외수출에서 유럽 매출비중을 50%까지 끌어올리고, 중동·아프리카에 이어 미주와 일본시장까지 공략하는 데 큰 동인이 되고 있다.

“홈캐스트는 이미 창업 3년 만에 코스닥시장에 입성하는 등 기록적인 성장을 일궈낸 회사였습니다. 때문에 제가 전체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체계화시킨다면 기존의 성과와 맞물려 큰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으리라 예견했습니다. 지난 2년간 그 과정을 추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50여 개국에 셋톱박스를 수출해 1230억의 매출을 달성한 홈캐스트의 고속성장은 올해 역시 진행형이다. 지난 1/4분기에 408억원의 매출을 올려 사상최대분기실적과 업계 최고수준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고, 연 2000억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고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 제품에 포커스를 맞춰 성장과 수익성을 동시에 공략하겠다는 포부이다. 중국업체와의 저가경쟁으로 인해 수익성이 열악한 저가 모델 대신 고기능, 고부가 제품을 내세워 승부수를 띄우겠다는 심산이다. 이를 위해 이미 PVR(개인영상 녹화장치), MHP(양방향서비스), HD(고화질) 및 CAS(수신제한시스템) 등 기술진입장벽이 높은 첨단 제품군을 선보였다.

고부가제품의 시장성을 확인시켜줄 2006년 독일월드컵은 홈캐스트의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한국방식의 DMB 기술

이 유럽표준으로 채택돼 월드컵 중계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유럽지역의 디지털방송 전환이 신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홈캐스트의 유럽수출에는 청신호가 들어왔다.

홈서버로 역할 변신할 셋톱박스, 제2의 도약

셋톱박스 전문기업이라는 타이틀을 넘어 디지털 멀티미디어 전문업체로의 도약을 선언한 홈캐스트는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나가고 있다. 비지상파 컨소시엄인 KMMB의 2대주주로서 DMB 사업권을 확보했으며, 향후 성장동력을 DAB와 DMB 분야로 확대시킬 계획이다.

DAB와 DMB는 이동 중에도 시청할 수 있는 디지털오디오와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으로, 휴대폰 시장에 버금가는 폭발적인 성장이 점쳐지는 사업이다. 홈캐스트는 지난 3월 DMB의 전단계인 DAB 단말기 개발을 완료했고, 오는 9월에는 PMP 형태의 DMB 전용 단말기의 독일 베를린 쇼 출품을 앞두고 있다. 본격적인 양산은 하반기 지상파 DMB 방송일정에 맞춰 들어갈 계획이다.

“IT업계는 시장환경 변화에 민감해야 합니다. 우수한 기술력을 갖추는 것은 기본이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제품화를 이뤄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홈캐스트의 강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DMB 사업은 홈캐스트가 준비하고 있는 디지털홈 컨버저스 시대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방송, 통신, 인터넷, 보안, 게임, 가전제품 등 생활의 모든 영역이 디지털셋톱박스 하나로 구현되는 시대가 머지않았다는 것이 신대표의 전망이다. 모든 것이 빠르게 돌아가는 가운데 진정한 여유로움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속도의 철학’을 주창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디지털홈 컨버전스 시대의 중심을 디지털셋톱박스가 당당히 차지할 것이라는 희망으로 오늘도 몇 걸음 앞서 걷고 있는 것이다.

선구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급변하는 IT시장을 향해하고 있는 신옥순 대표의 경영철학은 ‘감동과 행복’으로 요약된다. 고객에게는 감동을 선사하고, 주주에게는 행복을 주며, 직원들에게는 신바람 나는 일터를 제공한다는 의미. 구성원 각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신바람 나는 회사가 바로 신대표가 꿈꾸는 이상향인 것이다. 디지털홈 컨버전스 시대의 주역으로 부상한 홈캐스트(0000)의 순항을 오래도록 지켜보고 싶다.

